

## 한 · 일 전통극의 색채문화 비교

김 지 언<sup>†</sup>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의류패션산업전공

### The Comparison of Cultural Color in Traditional Performance of Korea and Japan

Ji Eon Kim<sup>†</sup>

Dept. of Apparel Fashion Business, Hansung University

접수일(2008년 6월 20일), 수정일(2008년 7월 30일), 게재확정일(2008년 8월 23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color application in the culture of Korea and Japan.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s the costume color of Changgeuk and Kabuki. This survey analyzes Munsell's 3 attributes(Hue, Value, Chroma), tone, and 3D color analysis by extracted color data. And representative color according to Obangsaek is prop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High chroma red in Kabuki costume is more used as symbolic color(passion and luxurious) in order to show character's personality than that in Changgeuk costume. 2. Low chroma YR color(no-dyeing color) in Changgeuk costume much more used because of Korean white robe preference and eco-friendly thinking. But high chroma yellow is restrictive color for symbolic color of emperor in Korea and Japan. 3. Blue is most frequently used in both costumes because blue is encouraging color by the theory of exponents of the five elements doctrine. 4. White in Korean Changgeuk costume is more used for white robe preference thinking, but black in Kabuki costume is much more used for symbol of power in Japan. The similarity of Korean and Japanese cultural color is to use much Obangsaek, less Ogansaek by the theory of exponents of the five elements doctrine, but the difference of Korean and Japanese cultural color is to use color differently according to preference thinking system.

**Key Words:** Cultural color, Similarity & Difference, Obangsaek, Changgeuk costume, Kabuki costume; 문화색채, 보편성과 차별성, 오방색, 창극 의상, 가부키 의상

#### I. 서 론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에 의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각 민족의 전통 복식과 전통적인 색채 문화가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와 창조적 영감의 원천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퓨전 역사극이 많은 관심 속에 방영되었으며 전통적인 색채문화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현대의 트렌드 색

채를 적용시켜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앞으로의 색채연구는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각 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서서히 내재되어 표현되어온 자국만의 고유한 색채관념과 문화색채를 가진다. 이러한 문화색채는 각국의 기후와 토양의 영향 및 사회·문화적인 요건을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교류와 같은 영향요인을 통해 고착되어 발전되게 된다.

한국과 일본은 고대부터 지리적으로 인접한 영향으로 상호 문화적인 교류를 지속해왔다. 오랜 역사 속에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jekim007@empal.com

본 논문은 2008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한자문화와 젓가락의 활용을 공유하였으며 색채문화는 음양오행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런 한국과 일본에는 서양의 오페라와 같은 전통극으로 창극과 가부키가 있다. 창극은 판소리에서 발전되어 여러명의 등장인물이 가야금, 대금, 피리 등의 오케스트라에 맞추어 자신의 배역을 연기하는 것으로 자유로움으로 대변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가부키는 화려한 복장, 독특한 연기와 음악이 조화를 보여주는 공연예술로 섬세한 특성을 가진다. 전통극의 의상은 자국문화의 독자성을 내포시키면서도 전통적인 색채를 극적으로 대비시켜 표현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문화색채연구에서는 일반 복식의 연구보다 그 가치와 의의가 크다고 여겨진다. 또한 전통 무대예술은 동양적인 복식미가 잘 형성되어 있는 종합적인 패션으로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 자주 디자인의 영감으로 재해석되어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색채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전통 무대의상을 착용하는 전통극으로 한국에서는 창극 의상을, 일본에서는 가부키 의상을 선정하여 두 전통극에 활용되는 의상의 색채특성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색채문화를 오방색을 중심으로 보편성과 차별성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한국과 일본의 색채 특성

### 1. 한국과 일본의 색채별 특성

중국의 색채관념인 음양오행사상에 근거한 오방색의 개념이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전파되어 양국의 색채문화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음양오행설은 우주간과 삼라만상은 모두 음양의 화합, 조화로 인하여 발생, 발전, 번영하는 것이며 만물의 생성원리를 <표 1>에서와 같이 오행인 목, 화, 토, 금, 수의 변천으로 설명하였다. 음양오행설에는 赤, 靑,

黃, 白, 黑의 오정색과 靑, 綠, 靑, 綠, 靑, 綠, 靑, 綠의 오간색이 존재한다(김영숙, 1988). 이 오정색은 오채색 혹은 오방색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색채활용의 중심을 이루는 사상으로 여겼다. 다음은 양국의 오방색별 색채특성을 살펴보았다.

#### 1) 백색

우리민족은 태양을 숭상하던 원시신앙에 따라 광명의 상징인 흰빛을 신성시하여 백의를 애용하게 된다(박영원, 1997). 한민족에게 백색은 길조로 표현되어 흰사슴, 흰곰과 흰뱀이 나타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러나 음양오행설에서는 백색은 서쪽을 의미하여 아름다움, 순결함과 동시에 노년, 불길함과 폐망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생활양식을 지배했던 유교적 사고방식은 인간적인 감각이나 감정을 억제하고 인격과 형식, 규범 등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사상이었기 때문에, 무채색의 사용이 많다. 색이 있는 것은 곧 육신의 욕망이라고 생각하여 천하고 품위가 없으며, 인격적인 것이 못된다고까지 여겨지는 경향과 함께 백색을 숭상했던 백의민족이라는 의식 속에 감정, 감각적인 것에서 초월하여 고매한 인격에 이른다든 금욕주의적인 인격완성의 한국인 특유의 인생관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 의식은 채색을 피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의식화되었다(하용득, 2001).

현대 일본의 백색은 안정과 호감을 주는 색채이지만 전통적인 백색은 세속의 삶이 아닌 신성한 신을 상징하는 색채이다. 그래서 순결한 장소의 상징으로, 신과 관계된 장소는 하얀 조약돌이나 흰색 모래, 흰색의 전통 종이로 꼬아서 만든 끈(shimenawa)으로 장식된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흰색이 상징적으로 사용되는데, 일본의 신부는 결혼식에서 머리 중앙에 흰색의 천을 늘어뜨리고, 죽은 사람을 조위할 때도 흰색을 사용한다. 일본인들은 신년에 신에 대한 감사와 기도로 둥근 모양의 흰떡을 준비한다. 17세기 한국에서 흰색 남이 수입되어 황후에게 선물되면서 얼굴을 하얗게 치장하는 풍습(oshiroi)이 생기게 되었다. 여성의 하얀 화장풍습은 오늘날 가부키 배우의 화장법에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건축적으로는 히메이지 성같은 흰색 외관을 가진 성이 있다(Hibi et al., 2000). 한국과 일본의 고대소설에 등장하는 흰옷의 처녀귀신을 통해서 백색은 공통적으로 죽음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표 1> 오행 및 오원소의 상호관계

오행	오색	오방	계절	신수	오미
금	白	西	가을	백호	매운맛
수	黑	北	겨울	현무	짠맛
화	赤	南	여름	주작	쓴맛
목	靑	東	봄	청룡	신맛
토	黃	中央	여름		단맛

## 2) 흑색

검정은 음의 색으로 태양이 사라진 어두움, 죽음 등을 상징하며 계절은 겨울, 방위는 북쪽이고, 오행은 수(水)이고, 풍수는 운무(雲霧)를 뜻한다. 시각적으로 소극적인 색이기 때문에 같이 쓰인 다른 색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흑색은 북방의 색으로 만물의 생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승려는 흑색 물감이나 땡감으로 물들인 검은 베옷을 입는다. 이런 검소한 복색으로 인해 고려 때 왕의 자문을 하던 승려를 흑의재상(黑衣宰相)이라고 했다(조영실, 2006).

일본의 흑색은 딱딱함과 품위를 상징한다. 불교의 승려들은 종교적인 훈련과 형식적인 관례복으로 흑색 복식을 사용하였다(Hibi et al., 2000).

## 3) 적색

적색은 계절로는 여름을, 풍수로는 주작을, 오장중에서 심장이고 오정중에서는 즐거움이며, 오미중에서 쓴맛이며, 오상중에서는 예이며 오성중에는 불성을 뜻한다(조영실, 2006). 적색은 음양오행설에서 방위로는 남쪽, 계절은 여름, 그리고 불, 태양, 피를 상징하는 온화하고 만물이 무성한 남방색이며, 생명력이 풍만하고 강력한 양의 색이다(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1993). 적색은 청색과 더불어 양기가 왕성한 색으로 천상의 '밝음'과 나라의 시작을 상징하여 가락국의 건국신화에 대표적인 색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재앙과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도 있는데, 붉은 팔죽으로 액운을 제거한다고 여겼다. 중국의 적색은 행운의 색으로 애용되었다면 한국의 적색은 벽사신앙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보라색은 16세기 명종이후 문헌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색으로 자색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특성이 있다. 자색은 귀색으로 여겨져 남성의 관복 등에 빈번히 사용되었고 복색 금제령이 수차례 있었던 것과 달리 기본색으로 인식되지 않는 중요도가 낮은 색채이다.

일본에서 적색은 평화, 안전, 가족의 번영을 기원하는 색채이다. 16세기 후반, 적색 망토와 카펫이 유럽의 여행객들을 통해 일본에 전래되어 고위층 사무라이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일본만의 토착적인 적색의 사용은 17-18세기경 중국의 영향으로 중국 대륙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적색 궁궐과 사찰의 관습처럼 주홍색(vermilion)으로 지어진 이츠클시마(Itsukushima) 사당이 있다. 18-19세기에는 왕족과 귀족들에 의해 안쪽은 검정색, 바깥쪽은 적색으로된 칠기식기를 선호

하였다. 중세이후로 일본에서 주홍색 칠기는 권위와 부의 상징으로 여성의 장식용 빛, 사무라이의 칼집, 왕가의 장식에도 사용된다.

일본 자주색의 역사적 기원은 8세기 짙은 자주빛 종이에 금색으로 새겨진 불교경전을 들 수 있다. 10-11세기에 자주색은 모든 색중 최고의 색으로 궁정과 지배계층의 고귀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인식되었다. 고위층 사무라이계급 여인의 반소매 고소대형 자주색 기모노에서 영향을 받아 에도시대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자주색이 유행색이 되었다. 현대 일본에서도 자주색은 특별한 상황에 적합한 고귀한 색으로 사랑받고 있다(Hibi et al., 2000).

## 4) 청색

청이 가진 방위는 동쪽이므로 해돋이, 밝음, 맑음, 창조, 신생, 생식의 상징의미를 지닌다. 오정으로는 기쁨이고, 오미에서는 신맛이며, 오상에서는 인의 미하고 오성에서는 수성을 뜻하고 풍수로는 청룡을 상징한다(김민기, 1987). 한국의 청색은 양기가 왕성해서 축귀(逐鬼)에 유효하다는 미신적 유습이 현재에도 생활 속에 남아있다. 하늘의 빛, 바다의 빛, 물빛으로 대치되어 한국의 신화 속 우주론에 큰 몫을 차지하는데, 소생의 기쁨을 나타내고, 출생을 상징한다. 또한 청색은 태양이 솟고 광명을 주는 까닭에 양기가 왕성함을 상징하며, 생과 행복을 보증하고 최대의 희망을 던져주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또한 청색은 젊음이나 희망, 신선함을 상징하여 장유유서를 숭상하던 시대에 미숙하다는 의미로도 통하였다.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소극적인 기원이 아니라 더 넓고 높은 영원한 차원에 도달하기 위한 발원이며 의지의 표현으로 한국인들은 청색을 사용하였다(임동권, 1982).

일본의 청색은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선호되는 색채였다. 인디고로 염색된 청색 의상은 여름용으로 안을 대지 않은 가타비라(Katabira)나 유카타(yukata)에 널리 사용되었다. 21세기 이전의 일본은 작업복, 광고용 천, 가게입구의 짧은 커튼, 모기장 등에 인디고 염색에 의한 짙은 남색(navy blue색)의 활용이 가장 많았다. 일본인에게 청색은 하늘의 신을 숭상하거나 고상한 종교적인 신성과는 무관하게 인식되어 정부의 칙령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는 색채로 활용도가 높았다. 녹색은 생명의 탄생, 젊음, 신선함을 상징하지만 일본 문화에서는 선호되지 않는 색이다(Hibi et al., 2000).

5) 황색

황색은 오색과 방위의 중심이며 4계절, 4방위를 모두 관계한다. 오성은 토성이고, 오미는 단맛이고, 오정은 옥심이며, 풍수로는 구담을 뜻한다. 우주의 중심에 해당하고 가장 밝고 빛나며 가장 준귀한 색으로 인식하며 통치권자인 천자를 상징하는 색으로 임금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이기도 하다(안현정, 2004). 만물을 포용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땅을 상징하는데, 빛, 존경, 신앙, 부귀, 신성, 충성, 관용, 지혜, 평화를 나타내는 반면 시기, 원한, 사악, 불의를 상징하기도 한다.

황색은 임금의 옷,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색이었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일반인의 사용이 제한되었다. 다만 불교를 숭상하였기 때문에 승려에게만 예외를 주었다(하용득, 2001). 대부분의 고대국가들은 왕족이나 귀족의 색이 청색, 적색, 황색, 자주색같은 밝은 일차색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황제는 황색을 띤 갈색(yellowish brown)을, 태자는 이차색인 주황색(orange)을 사용하는 것처럼 색채의 혼합에 의해 복합적이고 중성적인 색조를 가진 색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황금색은 황색에 금속성 광택을 첨가한 색으로 6세기 중엽 불교의 도입으로 황금색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가부키 의상에서 장식적인 색채로 많이 활용된다. 일본의 갈색은 일본의 색채문화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색이다. 자연적인 나무와 토양의 색으로 건축물이나 장식재의 원료로 활용되었다. 중국에서 도입된 차의 색으로 에도시대부터 차문화가 특권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된다. 17세기 무렵 차입과 줄기로 의복을 염색하여 일반인들의 상징색이 된다(Hibi et al., 2000).

2. 한국의 창극과 일본 가부키의 특성

1) 창극의 특성

창극은 신라시대에 발생한 전통 예술양식으로, 19세기까지 전해오는 판소리가 20세기 이후 연극의 영향을 받아 노래와 음악, 연기와 즉흥적인 표현이 춤과 관현악

단의 반주와 결합된 형태의 종합예술이다. 판소리와 달리 창극은 여러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며, 각각 배역에 따라서 연기를 하면서 판소리를 부르는 연극적 판소리로 가야금, 피리, 대금 등으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가 반주한다. 창극은 판소리의 사실과 가락을 그대로 살려서 부르는 판소리계 창극과 대본을 새로 지어 판소리 가락에 얹어 부르는 창작창극이 있다(백현미, 1996).

창극이 발생한 근대는 전통 한국 복식이 중국 대조선복제의 이중구조에서 양복과 한복의 이중구조로 변모되는 시대적인 격변기로 직물 색상 및 조직이 다양화되고 실용주의적 개화사상의 영향으로 의복 개량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양장지가 한복에 사용되고, 통치마와 고름이 없어지기도 하였다(이경자 외, 2003). 일제강점기에는 사회 각계에서 ‘백의금지, 색의권장’을 계몽하는 운동과 더불어서 복색을 단속하였다. 색의란 흑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백의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염색실습이나 강연회를 열었으며, 전통적으로 여성복은 저고리와 치마의 색이 다른 것이었으나 일제의 백의민족정신말살이라는 의도적 정책에 따라 상하 같은 색의 착용이 1930년부터 많이 퍼져갔다(고부자, 2001).

2) 가부키의 특성

가부키는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7) 서민의 예능으로 시작하여 현대까지 약 400년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어원상 가부키는 원래 가부쿠(화<:바람나다, 好色하다 등의 뜻)라는 동사가 명사화한 것이다. 가부키는 16세기 후반 여승 이즈모노 오쿠니(出雲가)가 교토(京都)에서 시작한 가부에서 비롯되었는데, 1629년 에도막부가 풍속교정을 이유로 모든 배역을 남자가 맡도록 칙령을 선포하여 여성연기를 남성이라는 일본 특유의 공연예술로 정착되었다(곽태기, 김은정, 2002). 가부키 배우들은 전통적인 화장법인 구마도리와 전통적 의상이 극대화된 화려한 의상을 입고 현악기와 북, 피리가 연주되는 무대에서 우아함과 절제된 자세를 보여주는 연기를 펼친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복식은 기모노(Kimono)로 에

<표 2> 가부키 의상 및 구마도리의 색채특성

가부키 의상의 색채특성		가부키 분장법인 구마도리의 색채특성	
적색 의상	피, 태양, 불 화사함과 정열, 정의의 피	홍 색	정의감이 넘치는 힘찬 소년이나 청년
		적갈색	땅거미, 거미의 정령
청색 의상	정춘과 비창	청 색	음험하고 사악한 존재
흰색 의상	청 정		
흑색 의상	권 력	차색과 흑색	귀신이나 악령

도시대 전기인 1657년 메이래키 화재 후 60년 정도가 현재의 기모노 양식의 성립시기이다. 길이가 긴 포 형태의 나가기를 호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기모노를 펼쳐놓으면 직선형의 평면 형태로 되어 있고, 소매의 거드랑이 부분이 트여 있다(황춘섭, 2001).

가부키 의상은 신장보다 길기 때문에 끝단을 끝듯이 걸으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소매를 길게 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적색 의상은 피, 태양, 불을 뜻하며 화사함과 정렬, 정의의 피를 상징한다. 검은색은 권력의 상징이고, 흰색은 청정의 상징이며 옅은 하늘색은 청춘과 비창의 상징이다. 가부키 배우들은 '구마도리(常取)'라는 독특한 화장법을 통한 색채표현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보통 영웅이나 초인간적인 강력함을 지닌 인물은 얼굴뿐 아니라 팔이나 다리에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붉은 색으로, 악인이나 악귀(惡鬼)를 나타낼 때는 푸른색으로 그린다. 흥색의 구마도리는 정의감이 넘치는 힘찬 소년이나 청년을 표시하고, 푸른색은 음험하고 사악한 존재, 차색과 흑색은 귀신이나 악령을 나타낸다. 그로테스크하며 매우 과장된 화장법을 씀으로써 선인과 악인의 내면적 성격이 외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한다("한국, 중국, 일본", 2007).

### III. 전통극에 나타난 복식 색채특성

본 연구에서는 창극 의상의 이미지와 가부키 의상의 이미지를 2007년 8월 10일-2007년 12월 20일에 걸쳐 각각 100개씩 총 200개의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창극 의상의 이미지는 판소리계 창극인 심청가, 춘향가, 흥보전과 창작극인 시집가는날, 창극의병장, 창극제비 등에서 수집하였고 가부키 의상의 이미지는 일본 문화재청 등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미지 중에서 동일한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은 제외하여 중복되는 이미지가 없도록 이미지를 정리하여 각각 61개, 57개의 선정된 이미지에서 관측 환경과 모니터 영점조정을 거친 후, 표준적인 색채관리시스템(CMS)을 탑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색채를 추출하여 총 614색의 색채 데이터를 얻었다.

자료수집방법은 디지털 이미지의 색상을 컬러 피커(color picker)로 추출하여 먼셀 Conversion Version 8.0.3을 활용하여 RGB 값을 H/V/C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유니폼한 색공간인 CIE L\*a\*b\*색공간의 L\*a\*b\*값으로 변환하였다. 추출된 색채데이터를 통하여 색상, 색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색상분석은 먼셀 색체계에 의거하

여 색상, 명도, 채도로 분석하였으며, 색조 분석 방법은 산업자원부지원으로 I.R.I 색채연구소에서 제안한 Hue & Tone 120 color system을 사용하였고, COLOR 3D Version 2.0을 이용한 3차원 분석을 병행하였다.

추출된 색채를 통해서 창극 의상과 가부키 의상의 색채특성을 살펴보고, 사용빈도가 높은 색상을 중심으로 색채별 대표색상을 선정하였다.

#### 1. 한국 창극 의상의 색채특성

창극 의상의 색상분포를 <그림 1>에서 살펴보면, R과 YR의 분포가 45%에 해당하며 R, YR, Y의 분포는 59%에 해당하여 창극 의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색상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PB(10%)와 RP(7.5%)와 중성색(7.5%)이 사용되고 있다. 그 외로는 GY, BG, B색상이 활용되며, G색상의 활용이 가장 적은 빈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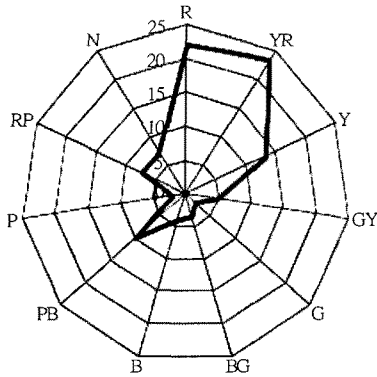
창극 의상의 40 색상분포를 <그림 2>에서 살펴보면, 7.5YR > Neutral > 10R > 7.5R > 2.5R 순의 분포를 볼 수 있다. R색상계열의 경우는 5R, 7.5R, 10R의 분포가 2.5R보다 많이 활용됨을 알 수 있다. YR색상계열에서는 7.5YR과 2.5YR의 사용빈도가 높았고, 5YR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Y색상계열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활용되었는데, 7.5Y가 5Y나 10Y에 비해 적게 사용되었다. PB계열은 7.5PB의 활용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7.5RP와 7.5GY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중명도와 중·고명도의 색상이 주를 이룬다. 채도면에서는 고채도보다는 저명도나 중·저명도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명도와 채도분포를 동시에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은 고명도, 중채도의 색상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인다.

창극 의상의 색조는 <그림 4>에서와 같이 I(15.4%), b(10%), v(6.7%)의 선명한 색조와 dk(13.4%), dp(14.8%)의 어두운 색조에 p(10.7%), vp(8%)의 파스텔 색조가 주류를 이룬다. 중성색 중에서는 흰색의 사용이 많았고, 회색과 검정색의 사용은 미비하였다. 이는 한민족의 백의승상 전통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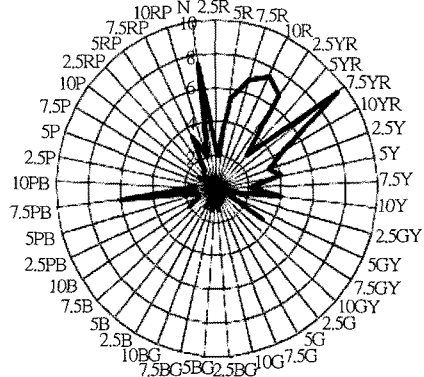
#### 2. 일본 가부키 의상의 색채특성

가부키 의상의 색상분포를 <그림 5>에서 살펴보면, R색상(26.7%), PB색상(14%), P색상(12%)과 YR색상(7%), 중성색(9.3%)이 주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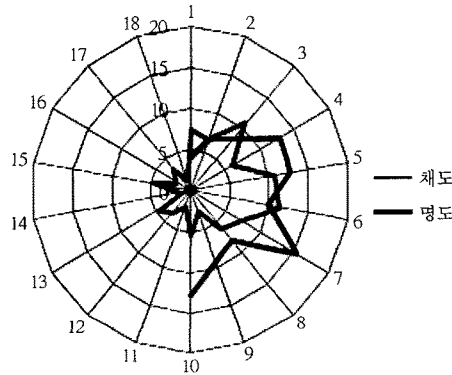
가부키 의상의 40색상 분포를 <그림 6>을 통해 살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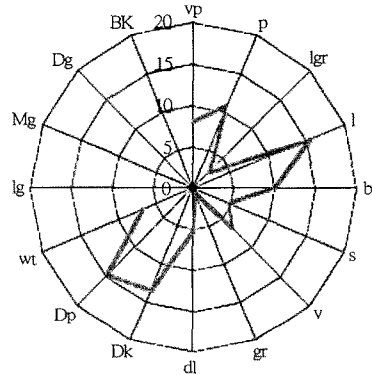
<그림 1> 창극 의상의 10색상 분포



<그림 2> 창극 의상의 40색상 분포



<그림 3> 창극 의상의 명도와 채도



<그림 4> 창극 의상의 색조분포

보면, 가장 많이 활용되는 R색상계열에서는 5R, 7.5R이 주로 사용된다. PB계열에서는 7.5PB의 활용도가 높고, P계열에서도 7.5P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부키 의상은 <그림 7>에서와 같이 명도 4를 제외한 전영역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고명도, 저명도의 분포가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 가부키 의상의 채도는 저채도가 주류를 이루며, 고채도, 중채도의 색채 사용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가부키 의상의 색조는 <그림 8>에서와 같이 dk(16.8%) >v(14%)>p(12%)>vp(9.4%)>dp(8.7%)의 순서로 활용도의 차이를 보인다. 중성색은 흰색과 어두운 회색의 사용이 많았다.

3. 창극 의상과 가부키 의상의 색채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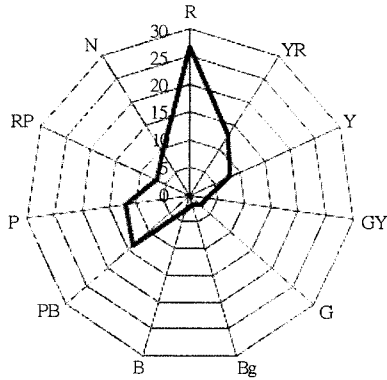
1) 색상과 색조 비교

창극 의상은 색상면에서는 R, YR, PB, RP계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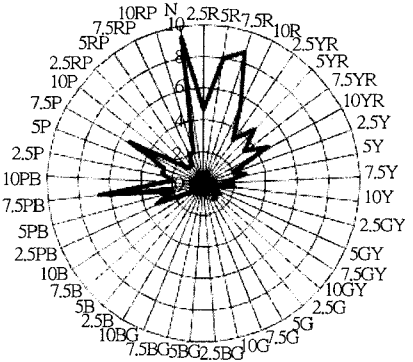
분포되고, 가부키 의상은 R, PB, P계열에 분포된다. 창극 의상은 가부키 의상과 달리 백의승상정신과 친자연주적인 경향을 가진 소재의 사용으로 인한 YR색상의 활용이 높으며, 가부키 의상은 P색상의 활용도가 높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창극 의상에 비해 가부키 의상은 한색계열의 분포가 많았다. Neutral색상에서는 창극 의상은 흰색의 사용이 많고, 가부키 의상은 흰색과 더불어 중간 회색, 어두운 회색의 분포도 보인다.

<그림 9-10>을 살펴보면, 창극 의상에서 R계열은 dp(8%), dk(5.4%), v(4.7%) 색조에 많이 분포되며, 가부키 의상은 R계열은 선명한 v색조(11.4%)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어두운 색조인 dk(6%), dp(3.4%)과 밝은 b(2.7%)색조에 많이 분포된다. 창극 의상에서 R계열은 진한 dp색조를 많이 활용하는 반면, 가부키 의상은 선명한 v색조를 많이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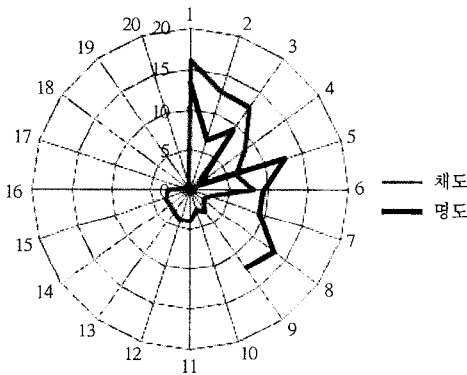
창극 의상에서 많이 활용을 보이는 YR계열은 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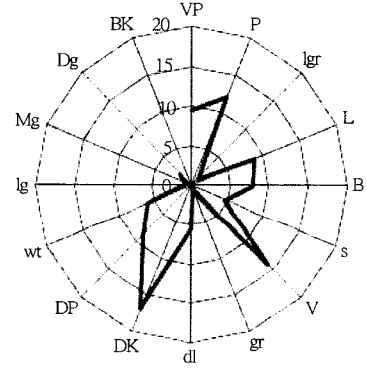
<그림 5> 가부키 의상의 10색상 분포



<그림 6> 가부키 의상의 40색상 분포



<그림 7> 가부키 의상의 명도·채도분포



<그림 8> 가부키 의상의 색조분포

gr색조를 제외한 전 색조에 분포되는데, b색조, dk색조, l색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창극 의상의 PB계열은 저명도의 dl색조, dp색조에 주로 분포하며, 가부키 의상의 PB계열도 어두운 색조인 dk색조, dp색조, dl색조에 활용이 높아서 PB계열에서의 색채 사용은 창극 의상과 가부키 의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창극 의상의 RP계열은 고명도의 p색조에 가장 많이 다음으로는 저명도 dl색조, dp색조에, 밝은 b색조가 활용되었고 가부키 의상에서도 p색조의 활용이 가장 많았다. 창극 의상과 달리 가부키 의상은 P계열 색상의 활용이 많다. 가부키 의상에는 어두운 색조인 dk색조, 진한 dp색조와 p색조, s색조에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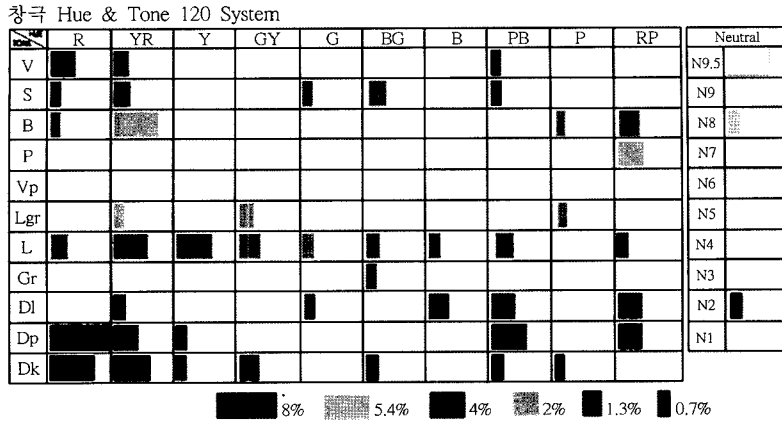
2) L\*a\*b색공간 비교

L\*a\*b색값을 이용하여 색채공간에서 3D 분포를 분석한 것이 <그림 11>이다. 한국의 창극 의상은 색공간에서 L\*축을 중심으로 색이 넓게 퍼져있는데 비해 일본의 가부키 의상은 좁은 범위에 모여 있다.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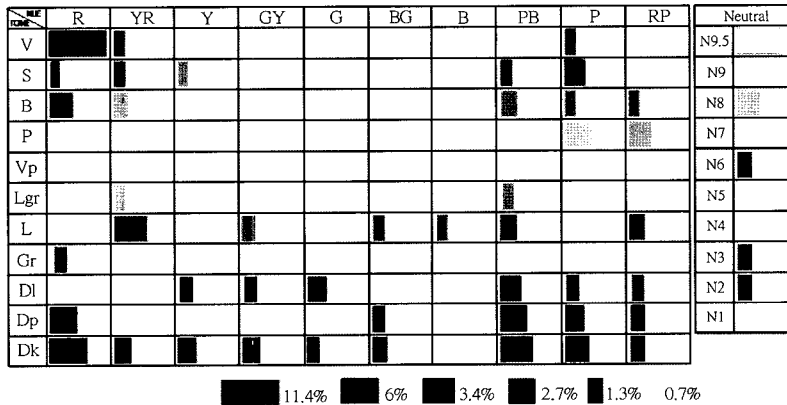
극 의상은 백색, 소색을 중심으로 한 높은 L\*값 영역의 분포를 가지며, 가부키 의상은 적색과 흑색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모여서 분포된다. -a값을 갖는 G, GY, BG 영역의 분포는 적으며, 가부키 의상에 비해 창극 의상은 +b값을 갖는 황색계열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다. 같은 적색계열에서는 창극 의상에 비해 가부키 의상의 채도가 높은 분포를 보이며, 청색계열에서는 창극 의상에 비해 가부키 의상은 명도가 낮은 분포를 보인다.

명도면에서도 창극 의상과 가부키 의상 모두 백색의 사용이 많지만, 특히 가부키 의상에서는 흑색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채도면에서 가부키 의상은 고채도의 R계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저채도에 색상들이 고르게 분포한 반면, 창극 의상은 R계열과 YR계열에서 전체 채도가 고르게 분포되었다. 한색계열인 B계열, PB계열, G계열에서는 중·저채도로 분포되었다.



<그림 9> 창극 의상의 색상·색조분석



<그림 10> 가부키 의상의 색상·색조분석

#### IV. 창극 의상과 가부키 의상의 대표색

##### 1. 창극 의상의 색상별 대표색

색상별 대표색을 선정하기 위해서 색상과 색조분석에서 평균값 이상의 특징적인 빈도분포를 보인 색을 선정하였다. <표 3>은 전체 출현빈도가 3 이상인 색채이며, <표 4>는 출현빈도가 2 이상인 색채이다.

창극 색조는 dp색조와 dk색조가 우세하다. dp색조의 R색상과 l색조의 YR색상이 대표색으로 나왔으며, dp색조의 PB색상과 흰색도 포함된다.

##### 2. 가부키 의상의 색상별 대표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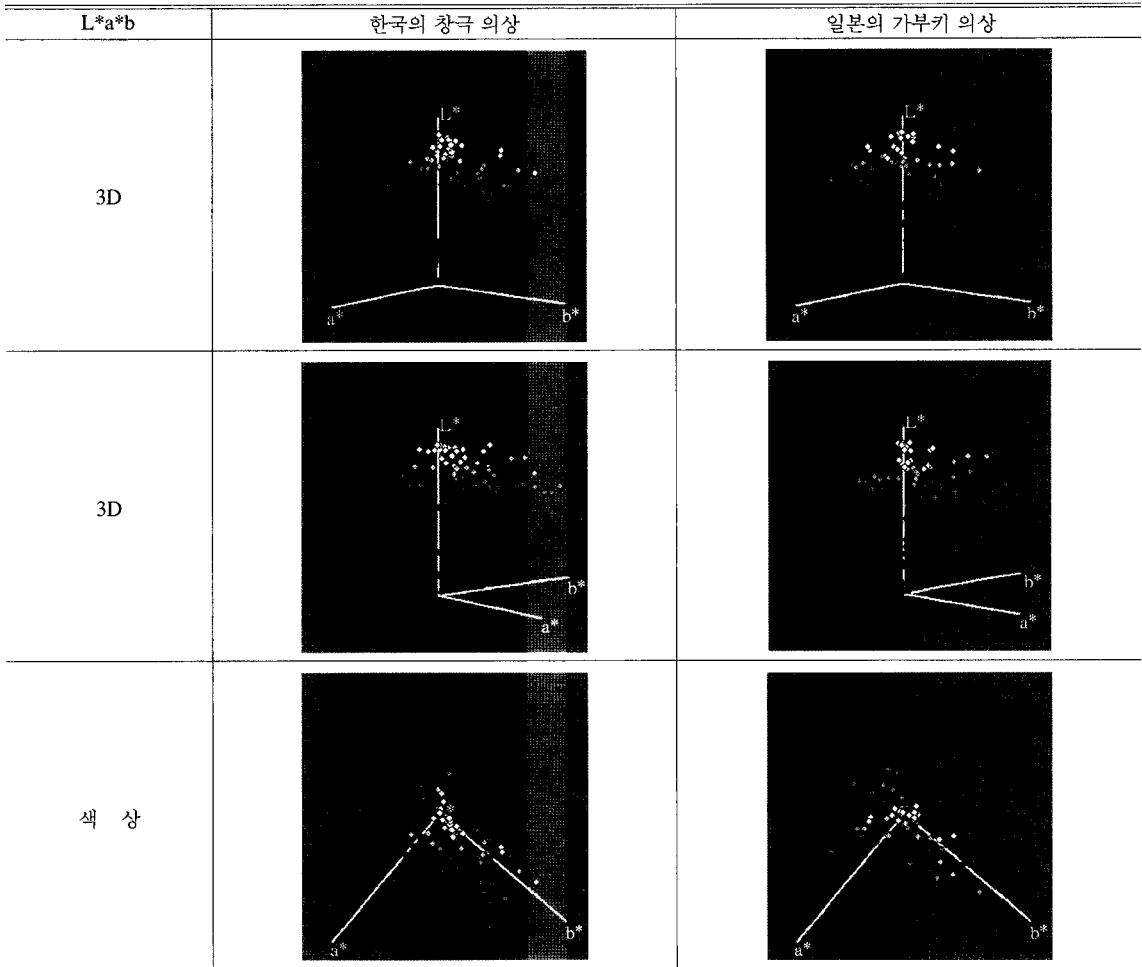
<표 5>은 전체 출현빈도가 3 이상인 색채로 가부키 의상의 대표색으로 볼 수 있으며, <표 6>는 출현빈도

가 2 이상인 색채이다.

적색은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더욱 선호되는 색채로, 가부키 의상의 적색은 주목성이 높게 선명한데 반해, 창극 의상의 적색은 저채도와 저명도의 색채가 사용되었다. 가부키 의상에서 적색은 화사함과 정렬, 정의의 피를 상징하므로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고채도의 색상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창극 의상에서 두드러진 사용빈도를 보이는 황색은 채도에 따라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 고채도의 선명한 황색은 우주의 중심과 황제를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저채도의 황색은 사용빈도가 높다. 저채도의 황색은 오방색 중 가장 자연에 근접한 색이었고 친자연주의적 관념에 의한 색이었으며 흙(土)을 상징하는 색이었다. 색을 쓰지 않는 소색이나 무색의 개념에 가까웠으며 의식하지 않고 사용된 일상생활의 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황색의 일반적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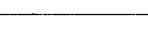


<그림 11> L\*a\*b 색공간 분석

용과 채도의 상승은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 근본이 되었던 음양오행사상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황색과 인접한 갈색은 꾸미지 않은 색채로 소박하고 친자연 주의적 특성을 표현하는 색이었으나 색채의 상징성이 중요시되던 시대적 상황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색이었다. 오간색의 하나인 녹색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색채로 활용빈도도 매우 낮은 편이다.

동쪽을 의미하는 청색은 음양오행사상에 의거하여 그 착용이 장려되었고, 사용에 있어서도 제약이 적은 색으로 창극 의상과 가부키 의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특히 가부키 의상에서의 활용빈도가 높다. 청색은 퇴색되는 속도가 느리고 벌레에 의한 옷감의 손상을 막아주는 장점이 있고, 값싼 염색 재료와 다양한 방법에 따라 염색이 가능한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색채이다.

<표 3> 창극 의상의 대표색

색 상	색채샘플	색채데이터		색 조
		H	V/C	
R		5.12R	3.97/9.04	dp
		8.25R	3.81/16.24	dp
		9.77R	2.45/10	dp
YR		7.24YR	7.03/4.26	l
		8YR	1.16/3.41	dk
		6.93YR	6.96/10.17	b
Y		2.21Y	9.55/1.78	vp
PB		7.25PB	2.49/12.81	dp
W		7.03GY	9.8/0.1	

<표 4> 창극 의상의 색상별 대표색

색 상	색채샘플	색채데이터	색 조
		H V/C	
R		5.12R 3.97/9.04	dp
		8.25R 3.81/16.24	dp
		9.15R 1.46/6.86	dk
		9.77R 2.45/10	dp
YR		7.24YR 7.03/4.26	l
		8YR 1.16/3.41	dk
		6.93YR 6.96/10.17	b
Y		2.21Y 9.55/1.78	vp
GY		7.99GY 5.73/1.85	lgr
		7.64GY 5.36/5.63	l
B		0.65B 4.7/4.92	dl
PB		7.25PB 2.49/12.81	dp
P		8.9P 6.55/8.88	b
RP		7.91RP 3.76/7.7	dl
W		7.03GY 9.8/0.1	
DG		6.72P 2.85/0.85	

<표 5> 가부키 의상의 대표색

색 상	색채샘플	색채데이터	색 조
		H V/C	
R		3.63R 5.06/16.64	v
		5.09R 5.11/12.4	v
		7.85R 4.46/12.05	v
		0.79R 2.65/3.43	dk
YR		9YR 6.09/6.22	l
PB		7.64PB 3.21/10	dp
W		0.80GY 9.97/0.67	

무채색인 백색과 흑색은 색채의 개념으로 인식되지 못했으며 복식에서의 활용도도 매우 낮았다. 한국

<표 6> 가부키 의상의 색상별 대표색

색 상	색채샘플	색채데이터	색 조
		H V/C	
R		3.63R 5.06/16.64	v
		2.49R 0.5/2.01	dk
		5.09R 5.11/12.4	v
		5.02R 2.59/7.65	dp
		4.52R 6.19/13.81	b
		7.85R 4.46/12.05	v
		8.44R 3.55/11.52	dp
		6.48R 2.67/3.63	dk
		0.79R 2.65/3.43	dk
		2.64YR 7.76/2.13	vp
YR		8.08YR 5.52/5.84	l
		9YR 6.09/6.22	l
Y		5.73Y 9.38/3.07	p
G		2.37G 3.53/6.32	dl
PB		7.64PB 3.21/10	dp
		8.62PB 1.53/6	dk
P		2.67P 1.21/3.11	dk
		6.42P 9.04/4.61	p
W		0.80GY 9.97/0.67	
LG		4.35GY 8.06/0.3	
DG		6.69P 2.71/0.95	

창극 의상에서 흑색의 사용빈도는 매우 낮고, 그나마 보조적인 악세사리나 족두리에 사용된다. 그러나 일본의 가부키 의상에는 강렬한 권위의 상징으로 흑색의 복색을 착용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회색은 잡색으로 종교적인 상징색으로 의미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지 않았다. 반면, 흰색은 전통적인 백의선호사상에 근거하여 복색에서의 활용빈도가 높다. 그러나 천연염색법을 사용하여 염착 후 채도가 낮아서 밝

은 회색빛으로 보이는 색으로 축색되었다. 현대의 고채도 흰색은 염착 후 표백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에 따른 색채활용의 보편성과 차별성을 살펴보고자 한국과 일본의 전통극인 창극과 가부키에서 활용되는 의상의 색채 특성을 음양오행사상에 의거한 오방색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더불어서 각 색채별 대표색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색은 한국 창극 의상과 일본 가부키 의상에 지속적으로 선호되는 색상으로 관념적인 상징성이 매우 강한 색채이다. 특히 가부키 의상에서 고채도의 적색 활용이 높았고, 고채도의 주목성이 높은 적색일수록 상징적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 적색은 음양오행사상에 의거하여 양을 상징하는 색으로 힘과 정열을 의미하였고 나아가 절대적인 권력과 풍요,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가부키 의상에서는 화사함과 정열, 정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한다.

둘째, 양극 모두에서 고채도의 선명한 황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저채도의 황색은 사용빈도가 높았다. 특히 염색하지 않은 소색의 활용이 많았던 한국의 창극 의상에서의 YR계열의 색채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색은 음양오행사상에 의해 권장되던 색채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적었기 때문에 한국 창극 의상과 일본 가부키 의상에 공통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색이다. 특히 인디고 염색된 청색 의상을 선호하는 일본의 가부키 의상에서 창극 의상보다 PB색채의 활용이 여러 채도와 명도에서 우세하며 대표색으로 더 많이 선정되었다.

셋째, 음양오행사상에 의거하여 색채의 개념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백색과 흑색에 대해 살펴보면, 흰색은 전통적인 백의선호사상에 근거하여 창극 의상에서의 활용빈도가 높다. 반면 일본에서는 신성한 신을 상징하는 색채로 결혼같은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상징적으로 사용되는데 가부키 배우의 하얀 화장법 구마도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한국 창극 의상에서는 거의 살펴볼 수 없었던 흑색이 가부키 의상에서는 딱딱함과 품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한국과 일본 모두 음양오행사상에 의거하여 오방색의 활용은 많은 반면, 간색에 해당하는 G, GY색상

의 활용은 적게 나타났으며, 도교사상의 영향으로 인한 금욕적인 색채의 활용이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났다.

창극 의상과 가부키 의상의 색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권의 음양오행사상에 영향에 의한 오방색의 활용이 많았으며, 간색의 활용은 적은 색채사용면에서의 동질성을 보인다. 반면 한국은 백의숭상 정신과 소색의 사용이 빈번했던 친자연주의적인 색채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YR색상의 활용이 많았으며, 일본은 인디고 염색에 의해 청색을 일상생활에서 가장 선호하였으며, 주목성이 높은 고채도의 적색의 활용이 많았고, 무사계급의 엄격함을 표현하기 위한 흑색 의상의 착용이 한국보다 많은 색채문화의 차별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복색의 활용에서 각 국가의 문화적 측면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국제화시대의 각 문화권에 수용될 만한 패션문화상품개발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고부자. (2001). *우리생활 100년*. 서울: 현암사.
- 곽태기, 김은정. (2002). 중국, 일본, 한국의 오리엔탈리즘 패션에 나타난 토탈 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 52(5), 109-127.
- 김민기. (1987). *한국의 부작*. 서울: 보림사.
- 김영숙. (1988). *한국 복식사에 나타난 전통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영원. (1997).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미의식을 배경으로 한 한국적 색채. *청예논총*, 12, 59.
- 백현미. (1996). *창극의 역사적 전개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1993). 한국 색채·형·문양특성에 관한 연구-2차년도 중간보고서. 과천: 통상산업부.
- 안현정. (2004). *한국 미술에 나타난 전통 색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서울: 열화당.
- 이영희. (2001). 한국인과 일본인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조형의 식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1), 1-18.
- 임동권. (1982). *한국민속학 논총*. 서울: 집문당.
- 조영실. (2006). *음양오행설을 통한 한국적 색채미감연구-오방색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용득. (2001).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서울: 명지출판사.
- 한국, 중국, 일본에는 서양의 오페라와 같은 전통극이 있다. (2007). *Naver 지식인*. 자료검색일 2007, 8. 20, 자료출처 <http://kin.naver.com/db/detail>.
- 황춘섭. (2001). *세계 전통 복식*. 서울: 수하사.
- Hibi, S., Fukuda, K., & Bester, J. (2000). *The colors of Japan*. Tokyo: Kodansha International.